

2009년 6월27일 새벽, 스페인 세비아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제3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조선왕릉 40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다는 뉴스였다. 유산등재는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인류공영의 가치를 지녔다는 인 증이다. 대단한 영예다.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유 럽이다. 조선왕릉은 한꺼번에 금메달을 40개 나 댔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관광자원 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부가가치가 따른다.

지난 몇 년간 조선왕릉들을 답사하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 출간한지 며칠 만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니 감회가 남다르다. 북한 소재 2기(1대 태조 원비 신의왕후의 제릉, 2대 정종과 정안왕 후의 후릉)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분단의 아픔이다. 연산군묘, 광해군묘도 신청에서 제 외됐다. 서러운 업보다.

왕릉 순례를 하면서 사색한 것은 죽음이야. 죽 음 앞에선 누구나 숙연해진다. 특히 공인(公人)의 죽음은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인 중의 공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죽지 못한다. 육신은 소멸되었으나 행장 은 불멸이다.

잊혀지기를 원해도 잊혀질 수 없는 시퍼런 역 사로 살아 있다. 피를 동반한 야심과 패기로 권 좌에 올랐던, 업감에 떠밀려 왕이 되었든, 불멸 의 이름으로 높다란 봉분 이불 아래 누워있다.



###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소설가, 동국대 문학과 겸임교수

## 조선왕릉, 세계의 왕릉 된 까닭

왕릉순례는 '죽음과 역사'라는 두 가지 화두 와의 만남이다. 조선왕릉은 조선왕조 500년의 타임캡슐이다. 단종의 장릉(영월 소재)을 제외하 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100리 안에 있다. 왕이 하 루 만에 참배를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능역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후손들에게 남긴 최고의 선 물이다. 역사는 살아있는 교훈이자 화해의 축제 다. 500년 조선의 역사를 폐기된 역사책이 아닌 생생한 역사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왕릉이다. 말 없는 무덤은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이다. 역사

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한 왕조가 500년 간 지속되었고 재위한 왕과 왕비의 능이 온전히 보 존되어 있는 사례는 세계사에서 조선왕릉이 유 일하다.

왕릉순례를 하면서 건진 결론은, '최상의 법문 은 죽음이다'라는 것이다. 이승의 번잡한 논란 을 잠재우는 것이 죽음이다. 분분한 논란의 중심 에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상의 법문을 던지 자 '공소권 없음'이 되었다. 죽음이 최상의 법문 이면, 법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비다. 화해와

용서다. 죽음 앞엔 모두가 평등하다. 죽음을 생 각하며 사는 삶은 겸손하다. 비록 우리가 유명세 를 타는 공인이 아니지만 가슴 가장 중요한 자리 에 겸손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공기처럼 세상에 그윽하면 불신과 갈등, 적의(敵意)의 창날은 녹아내릴 것이다.

문화유산 등재 후에는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의 유산이 아니라 세계인의 유산으로 격상되었다. 국제 사회의 보호와 감시를 받게 된다. 보호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500년 역사의 타임캡슐인 조선왕릉을 눈과 귀,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영광이든 치욕 이든 역사만큼 큰 스승은 없다.

타임캡슐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철조망을 치면 보호는 된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 를 감금하는 행위다. 펼쳐서 보여주고 느끼게 해 야 한다. 왕릉에 가면 천연기념물적인 안내문이 있 다. 생물연대, 가족관계, 간단한 약력이 전부다. 도무지 눈길 끌 수 없는 안내판이다. 다양한 사 연과 치적을 들려줘야 한다. 스토리가 있는 왕릉 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환희심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청포도가 의어가는 7월, 세종 대왕의 영릉에도 한이 많은 장릉(단종), 사릉(단 종비 정순왕후)에도 푸른 잔디가 공평하게 눈부 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社說

## 저출산 극복 인식변화가 우선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19명. 전 해인 2007년에 비해 0.6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미 그 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 됐지만 평균 수치는 오히려 내려갔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저출산화에는 많은 요인이 있다. 경제구조와 교육환경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무엇보다 의식의 변화 를 이끌어 낼 정책의 부재도 저출산율 심화의 중요한 원인 으로 보인다. 불자들의 인식은 어떨까? 구체적인 조사결과 는 없지만 종교적 특성에 비추어볼 때 불자들이 저출산 기 피 현상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인을 위한 저출 산 인식개선 교육에 나섰다. 환경할 일이다. 정부가 최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과 때맞춰 의식교육에 앞 장선한다는 것은 불교다운 일이다. 이 교육 사업을 위해 제작 된 교재는 저출산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국민들의 의식과 사회 환경은 출산장려 정책보다 훨씬 빠 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는 것은 국민 의식 변화 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 극복의 묘 약, 인식의 변화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 충담 스님의 원력 확산되길

11년 전 6월 27일 이른 아침, 경기도 가평 호명산 감로사 앞 숲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예사 연기가 아니었다. 감로 사를 중창한 충담 스님이 스스로 소신공양을 하는 연기가요. 소신공양이란 글자 그대로 온 몸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다. 보통의 신심과 원력, 수행력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런데 충담 스님은 늘 "나는 소신공양 한다" 고 말했고 그 원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변에서도 말릴 수 가 없었다.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은 간절할 발원을 담고 있었다. 남 북의 평화로운 통일과 모든 중생들의 행복, 승단을 포함한 불교계의 화합 등이었다. 충담 스님은 이 비원을 부처님 전 에 바치고 몸애 불을 댕겼다. 그 거룩한 공양에 앞서 <정토 삼부경>을 파내기도 했다. 스님의 말년에는 철저히 소신공 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감로사는 충담 스님의 열반 11주기 법회를 갖고 감로사 성역화 계획을 내놓았다. 마땅히 해야 할 부사다. 이 불사를 통해 충담 스님의 발원이 모든 불자들에게 확산되고, 불자 들도 충담 스님처럼 간절할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돼 야 한다.

간절함이 없으면 수행도 기도도 이룰 수 없다. 뼈에 사무 치는 원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지는 불사도 없다. 충담 스님 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렸던 대승적인 발원들을 이루어 나 가는 것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정착시키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불사를 진행 할 감로사는 충 담 스님의 소신공양이 갖는 의미를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할 것이다.



### 사부대중 테마칼럼

#### 6월의 테마-휴식

"아침 시간을 쪼개고 저녁 시간을 활 용해 잠을 줄여야 한다." "24시간의 하 루 중 잠잠이 시간을 내어 자기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테크(時Tech), 휴테크(休Tech) 등 시간관리(Time Management)를 주 제로 한 서적과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 지도 제법됐다.

현대인은 하루 종일 폭풍처럼 휘몰 아치며 쉴 새 없이 일한다. '시간의 효 율적인 사용'이라는 생활방식에 맞추 다 보니 언제나 빡빡한 일정에, 업무 외 의 시간까지 할애하며 직장에서 하던 일을 집에서도 가져와 일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

이렇게 살아도 '삼삼십(38세 퇴출)'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으면 도둑)'를 면하기가 어렵다.

'비규정직법' 개정 논란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요즘이다. 20~30대 청장년들은 비정규직 고용 불안이나 취업의 기회가 아예 막혀버린 '88만

## 삶의 진정한 의미 천착해야 재충전 돼

원' 세대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아침저 녁 수면 시간마저 쪼개고, 인생의 많은 즐거움들에게는 등을 돌려야 할 것을 강요 받고 있다. 어쩌다 간혹 '성공'의 문턱에 발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 감에서.

2009년 여름, 한국의 한복판에서 설 새 이미 무엇인가를 이행하고 만들어 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결과 끊임없이 소비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극단성이 현대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왜곡된 모 습을 만들어내고 '인간 소외'에 대한 그릇된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 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을 고쳐나가지는 않는다. <에코토피아>에서 말하는 것 처럼, 법정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줄 여서 일과 삶, 세계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일은 삶이 아니라는 것 이다. 그리고 삶 역시 일은 아니다. 일 의 성과물에만 가치를 무게중심을 두 지 말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본질적으 로 천착해 나아가 스스로를 재충전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일에 지 친 삶을 변화시키며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야말로 옛사람들이 나무에 기대어 바람을 쐬는 사람을 형상화하

여 만든 '休' 일 것이다. 일에 침잠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 고 균형 잡힌 삶을 살자. 일과 삶의 교 집할도 결코 하나는 아닐 것이다.

이런 여름, 남쪽의 푸른 바다나 깊은 산 속의 계곡에 갈 수 없는 형편이더라도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며 느긋하게 '자신만의 휴식'을 여유롭게 즐겨보자.

진정한 휴식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삶 을 허비할 수는 있지 않은가? 일하지 않는 삶보다도 비참한 것은 '일중독 자' 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허리가 편찮으신 어느 날은 아나를 존자에게 살법을 말기치 않으셨던가. 하루라도 6일 간의 천지창 조 끝에 하루는 꼭 쉬셨다는 안식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항상 듣기 편하지 않 은 나의 영혼보다 쉬지 못할 우리 절 부 처님께 오르는 휴식의 선물로 유키 구 라모토의 '로이스 호수(Lake Loise)'를 공양 올려야겠다.

정완 스님

전국부구학회 설립자  
서울 정형사 총무



### 현불만평 박구원

입장 바뀌면 해결 쉬울 듯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아온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목불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관절통증·허리통증·어깨·목 통증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골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뻥뻥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멸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 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발라주

갸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이 이렇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 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뻥뻥지 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 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 다. 120ml×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명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 지 않지만 스님만큼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활 뿔아버 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 나 뿔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 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 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 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 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 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 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 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 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 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 낐다. 이 치약은 사용 후 구취를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